

文대통령, 재보궐 참패에 "국민 질책 엄중히 받아들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입장을 밝히며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적폐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재보궐 선거 결과 큰 격차로 서울과 부산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즉각 반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는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부족했다는 점을 느낀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반드시 도전과제 극복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이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최광수/기자

「칼럼」 "기부문화, 이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정착할 때"

자선이란 인정과 자비 등의 무형적 온종 행위와 경제적 원조를 두루 포함하는 말이다. 자본주의의 중심에서 살다보니 경제적 원조가 자선을 통칭한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사실 자선은 타인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 에너지를 두루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위인을 만들기도 하고 범죄자를 양산할 수도 있으니, 인간의 말과 행위는 예상치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자선이란 원초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기인한다.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에서 나온 구절은 강한 울림을 준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누구나 한번쯤 들었을 법한 이 시구절이 우리 내면에 주는 공명은 자선의 의미와 직결된다. 연탄재처럼 한번이라도 누구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었는지 돌아켜보면, 고개가 숙여지기도 한다. 한 편의 시가 한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에게는 따뜻함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보는 계기를 주고 있다.

자선의 경제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한국이 경제 성장의 과도기를 거쳐, 성숙기로 나아가면서, 사회 복지는 총출해 지기 시작했고, 결국 국가적 재정 이외에도 기부와 사재 출연은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의 삶을 지탱해 주는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국제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기부금 총액은 지난 2018년 기준 13조 900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 20년 평균 개인기부금 65%, 기업기부금은 35%이며, 1998년 이후 개인기부금 총액이 기업기부금 총액을 앞지르고 있다. 개인의 기부금이 국내 굴지 기업의 기부금을 앞지르는 사실만으로, 한국인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의 경우, 미국인들의 가구 평균 수입의 2%가량이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미국의 기부와 자원봉사(GVUS) 연구에 따르면 약 70%의 미국 가구가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둘 중 한명은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미국인들의 50%가 한달에 2시간 이상 다양한 형태로 자원봉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한국은 가족이나 특정한 공동체 울타리를 중심으로 한 한정

적 기부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조금과 부의금 문화에 한정된 문화는 이타적 인식에 바탕하기 보다는 체면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특유의 폐쇄적 기부문화라 볼 수 있다. 조건없고 경계없는 기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이제 기부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나의 경제활동의 잉여산물을 선심쓰듯 베푸는 것이 아닌, 삶의 일부로 인식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나 소규모 자선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며, 보편적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필요하다.

기부를 실천하는 공동체나 개인에게는 그에 걸맞는 보상도 필요하다. 기부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들의 특권이 아닌, 누구나 타인을 돕는 선한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유·무형적 도움을 받는다. 인간은 세상에 맨몸으로 던져진 존재다. 가깝게는 가족의 조력으로 성장하며, 나아가 사회적 혜택 또한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로 인한 자선의 결과물이다.

과세의 의무를 지닌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간접적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진일보한 자선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때, 우리가 꿈꾸는 복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회장/문기주

정부 "4차유행 본격화 가능성...방역 긴장감 다시 높여야"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환자 수 증가...불필요한 모임 취소해달라"

"4~5월 확산세 막고 취약층 백신접종 마무리하면 위험성 크게 줄 것"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지금 우리나라는 4차 유행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며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면서 "비수도권에서는 경남권과 충청권에서의 환자 발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은 취소하고 만나서 인원을 줄여주기 바람"이라며, 마스크를 벗게 되는 식사나 음주 모임을 밀폐된 실내에서 하는 것은 삼가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모든 인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며 "일행 중 일부만 명단을 작성하는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를 찾아서 분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일선 보건소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므로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명단 작성이 중요한만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모든 인원이 출입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최근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데, 모든 이용객은 수기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역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하면서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해 온 주 2회 특별방역점검은 앞으로 2주 동안 주 3회로 확대해 실시한다.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행정조치를 요청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괄반장은 "노래연습장의 감염 위험이 높음에도 영업을 확대한 것은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과 책임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노래연습장 관리자와 이용자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예방접종 대

상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예방접종에 협조해 주신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고,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낮아져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에서 환자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본인의 안전과 우리 가족, 이웃을 위해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4월과 5월에 무사히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아내고,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접종을 마무리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그만큼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만식/기자



김형동 의원 등 초선의원 17명, 국민의힘 쇄신 의지 성명서 발표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패배라는 입장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크게 이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선거 바로 다음날 아침 당대회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을 비롯한 초선의원 17명은 선거 승리가 확정된 8일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번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패배”이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무거운 숙제를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임과 동시에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중 42명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장 현장에는 김형동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다음은 성명서 일문이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때로는 따끔한 꾸중과 질타를, 때로는 환호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의 승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의 패배이자, 우리 국민의힘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만 명을 이겨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만 못하다고 하듯, 자만 말고 쇄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승리의 기쁨은 묻어두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국민의 큰 뜻이 또다시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처절하게 혁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자리나 의원생명 연장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의 앞에 당당히 용기와 소신을 펼치겠습니다.

미래 비전과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무장해서 국민께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민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정치권의 구태와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보수의 껌질을 과감히 버리

고 시대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초선 56명의 신선함과 개혁의지로 세상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간절한 뜻을 무겁게 받들어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8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일동
최광수/기자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코로나19

송탄예방접종센터 방문 격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보건의 날을 맞이해 이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송탄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광미연 위원장과 이해금 부위원장, 강정구 의원, 유승영 의원, 정일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접수 ▲문진표 작성 및 예진 ▲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전체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오는 15일 개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센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광미연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예방접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시민들이 예전처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흘리는 땀의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는 한 현재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주/기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 '반려동물 보험활성화 및 복지혜택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반려동물 보험활성화 및 복지혜택지원 방안」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에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회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반려동물 보험활성화 및 복지혜택지원 방안을 토론했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중윤 국회의원, 김상호 하남시장,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력국장이 참석했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장대순 총괄주임교수가 맡아 진행하였다. 장대순 교수는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

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정책으로 반려동물 관련 보험의 활성화와 반려인들의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과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동물보호과 이은경 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문제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행정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더불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의료비 부분 예산 투입, 경기도 반려견 놀이터 설치 지원, 관련 동물보호복지팀 시군 전담부서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하남교육포럼 원종영 사무총장은 반려동물의 값비싼 사육 비용으로 한 해 국내에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10만 마리가 넘고 있는 현실을 예로 들며 해결 방안으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 문제와 관

련하여 정부에서 반려동물보험 의무화에 관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대한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송준호 이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상생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반려동물과 함께 만드는 도시 계획’을 들며 반려동물 복지 체계와 인식을 위해 지자체에서부터 노력해야 하고 덧붙여 민관이 협업해 비반려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은 반려동물이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준비가 미비하다며 그 대안으로 장대순 교수의 경기도 지역별 유기동물 입양센터 조성 방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사단법인 야옹야옹 강승희 대표는 동물보호단

체 대표로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를 식용으로 쓰는 부분부터 종식이 필요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하남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효성이 없는 반려동물보험 의무화에 있어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반려동물 학대에 있어 피학대동물이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하남시 도시농업과 강윤석 동물방역팀장은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 법적·제도적 한계를 안타까워하며 정책적·제도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추민규 의원은 “반려동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앞장 설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대로 바로 잡고 동물을 대하는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최근수/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 최수진 / 부회장 박무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 최수진

대표전화 : 1899-9659 e-mail :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 내선 (112) 문화부 :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 서울 가50146 사회부 : 내선 (113) 부동산부 :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 내선 (114) 오피니언부 : 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 : 내선 (115) 지방부 : 내선 (119)
편집국 : 02)2612-2959 팩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포항시,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실시

인근 지자체와 합동... 빅데이터 도면 활용으로 영치 효율 극대화

포항시는 인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 영치활동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와 연계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상북도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시·군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실시된다.

포항시는 첫째 날인 7일(수요일)에 실시하며, 포항시 직원과 인근 시·군에서 지원하는 체납세 전담팀 등 총 22명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 인식이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8대를 동원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영치에는 체납자 주소 정보를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계한 체납차량 분포지도로 제작해 번호판

영치에 활용함으로써 영치 효율을 극대화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즉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조치 후 공매처 분을 하여 체납세에 총담할 계획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미만의 단순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예고제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체납을 미연에 방지한 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관허사업 제한 유보,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첨단 영치장비

를 이용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할 계획이다”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번호판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대전중부서, 구리전선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심야시간때 훔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차량 적재함과 창고에 보관 중인 전선을 신고 가는 수범으로 1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구리 전선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대전중부경찰서는 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 중·서구 일대에서 심야에 훔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차량 적재함과 창고 등에 보관 중인 전선을 자전거에 신고가는 수범으로 총 18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절취한 혐의로 A(34세)씨를 검거했다.

과거 절도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는 구리전선이 손쉽게 현금화 할수 있다는 점을 노려 심야시간때 노상에 구리전선을 실은 주차된 트럭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

중부경찰서장은 최근 손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구리전선을 노린 유사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약화된 경제상황에서 안정적 민생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21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상반기 침입 강절도 집중검거 기간'으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중에 있다.

경찰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약화된 경제상황에서 안정적 민생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21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상반기 침입 강절도 집중검거 기간'으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중에 있다.

고정화기자



청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확보 및 선진화 유도 위해

청주시가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 선진화 유도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주시와 충북일 반화물협회, 주선사업협회와 2개 반 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총 444개사 중 10%인 45 개사를 선정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삿짐을 불법 운송·주선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화물운송업체 및 불법 이삿짐 업체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해 불법 화물 운송 행위를 뿌리 뽑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구미시 환경오염 사전 예방 가축분뇨 합동 점검 실시 및 1분기 점검결과

구미시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및 시·군과 합동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22개 시·군 가축분뇨 관련시설 66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반 3인1조로 11개조를 편성하여 환경피해 다발지역, 악취, 무허가 축사 등 관련시설을 점검 계획이다.

가축분뇨 점검대상 선정 후 도·군·구와 합동 점검할 계획이며,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 행위, 악취 등 축사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전반적 사항을 지도·점검한다.

2021년 1분기 동안 가축분뇨 관련 시설 59개소를 조사한 결과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2건, 가축분뇨 부적정운영 7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8건 등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작년도 위반건수(21건)의 81%에 달한다.

위반시설에 대하여 고발(2건) 및 행정처분(5건)과 조치명령(4건), 과태료(10건) 처분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였으며, 축산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도 3월 25일부터 부속도 검사제도 계도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축산농가 중 부속도검사 여부 확인 및 퇴비처리 불분명 농가를 단속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및 축산악취 민원을 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집중단속 기간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여, 악취 및 분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환경보전과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남궁영기기자



인천시, 봄철 어선 1,453척 특별 안전점검

어업인 및 낚시승객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어선 안전점검에 만전

인천광역시시는 봄철 어선 안전점검을 맞아 어업활동 증가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낚시활동으로 인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봄철 어선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 합동 점검단은 50일간(3.29. ~ 5.17.) 인천시 등록 어선 1,453척에 대해 안전관리·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어선사고 건수가 많은 10톤 미만 어선, 최근 사고 발생 업종, 노후어선 및 낚시어선의 집중 점검을 위해 인천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수협중앙회 인천어선안전조업구,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군·구 주관 일반 점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기관실내 기관장치 상태 확인 ▶안전장비(구명조끼, 소화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 ▶레이다 등 항해·무선설비 설치·작동상태 ▶낚시어선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등이다.

점검 결과 구명설비,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낚시어선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더불어 낚시 안전수칙 및 어린물고기 포획 금지 등 낚시제한기준 홍보(계도) 등을 병행 실시해 수산자원 보호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어선(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장, 선원 및 승객의 안전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어업인 및 낚시승객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어선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가겠습니다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심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메스발전소(추진)

비화산지대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용인시 백군기시장, 3개구 민원 현장방문 점검

백군기 용인시장은 7일 처인구 모현읍 능원·왕산리, 기흥구 보정동, 수지구 성북동 등 3개구 민원 현장 3곳을 차례로 방문 점검했다.

각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접수된 현장을 직접 살피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백 시장은 경기 광주시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모현읍 능원·왕산리, 방문해 능원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개선, 경안천~탄천 자전거도로 등 올해 진행되는 주민지원사업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문승중 모현읍 이장협의회의 회장 등 주민대표 16명과 만나 향후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모현읍이 광주시와의 경계에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백 시장은 “시의 관문이기도 한 모현읍이 활기찬 공간이 되어야 용인시에 대한 인식도 좋아진다”며 “올해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이 진행 중이고 지속적으로 교통·체육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고 말했다.

이후 백 시장은 기흥구 보정동을 찾아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정문 앞 진입로 정체를 해결을 위해 최근 완료한 좌회전 신호 연장과 유턴·좌회전 차선 길이 연장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관련부서에 “정문 진입로 정체 해결을 위해 일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지속적으로 사안을 모니터링 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백 시장은 지난 2일 새로 조성된 수지구 성북동 별다울 근린공원을 찾아 파고라·야외테이블이



높은 피크닉존과 레그프레스 등 운동기구를 갖춘 전망타워를 둘러봤다.

백군기 시장은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 하는지 진심으로 공감

하고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라며 “앞으로도 직접 민원 현장을 직접 살피고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광명시, 코로나19 2분기에 예방접종 시작 '학교 돌봄 종사자 우선 접종'

감염 취약계층 보호 및 학교 내 감염 전파 차단

광명시는 7일 광명시민체육관 실내경기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학교 및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다.

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 학생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특수교육·보육 종사자와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학교 내 보건·간호 인력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내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했다.

이번 접종 대상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보건교사 36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종사자 118명,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종사자 42명(간호인력 2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종사자 9명 등 총 205명이다.

광명시는 사전예약제로 인원을 분산해 7일과 14일 이틀간 접종한다. 이번 접종은 1차이며, 2차는 10주 후에 실시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백신 수급에 따라 4월

중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광명시는 각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2분기 접종 동의서를 받고 있다.

전순희/기자



안양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98.5% 지급완료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방역에 버팀목 역할

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들에게 핀셋지원한 '안양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급율이 98.5%를 기록하며 종료됐다.

시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및 2회 이상 영업제한 업소에 100만원, 1회 영업제한 업소 5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달 1일 기준 총 11,137명의 소상공인이 행복지원자금을 신청, 총 100억4천5십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지난 달까지 온라인 신청기간을 놓친 행복지원자금 미신청 업

소에 대한 현장 접수를 7월말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4월부터는 재난지원자금 T/F를 구성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소상공인 맞춤형 밀착 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행복지원자금이 작은 도움, 큰 힘이 되어 우리시 지역경제에도 따뜻한 봄날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종균/기자



평택시, 지자체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3,000만원 확보

평택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로 3천만원을 받았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평택시는 명실상부한 혁신도시로 도약함은 물론, 3천만원의 인센티브도 받았다.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2개 지표에 대해 전문평가단과 국민평가단 심사를 하는 것으로,

평택시는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과 혁신사업 참여도, 주민참여, 협업문화,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 등 전 분야에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관 대표 혁신사례인 로봇보행 재활운동 사업은 우수 혁신정책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정장선 시장은 “소통, 나눔, 혁신을 시정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민선7기 출범이후 적극적인 혁신행정을 펼쳐 모든 부서가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8년부터 3년간 총 1억 8천만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지원받아 행정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남주/기자



시흥시-경기과학기술대학교, 2021년 제1차 정책협의회 개최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상호협력 및 지역상생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4월 6일 시흥시청에서 개최했다.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2019년 4월 성공적인 대학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차례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총 12건의 안건이 상정돼 협력·추진됐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진행했다. 대학협력사업 추진현황 공유와 중앙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작년 한해 시흥시와 과기대는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소래산 첫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흥시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개발 사업', '시흥시 마음 케어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대학의 참신한 시각을 기반으로 우수한 인력과 관계부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과 정과 결과 모두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과기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으며, 관계부서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양 기관 모두 합의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대학이 가진 우수한 자원과 인프라를 지역에 개방·공유함으로써 학교, 학생, 지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학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아가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경기도, 나한테 맞는 복지정보 힘들게 찾지 말고 알림으로 받으세요!

마이데이터 활용해 개인에게 맞는 복지정보를 찾아주고 신청일에 먼저 알려주는 '경기알림톡' 시범서비스 개시

앞으로 경기도민은 필요한 복지정보를 찾느라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개인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각자에게 꼭 맞는 복지정보를 안내받고 신청 시기에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앱 서비스가 출시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알림톡' 앱을 개발하고 9일 정식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앱은 사용자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마이데이터)를 내려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경기도의 다양한 복지사업 지원조건과 비교해 개인에게 적합한 정보만을 선별해 보여줄 뿐 아니라 신청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알려준다.

'정년기본소득'(도내 3년 계속 거주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예로 들면, 24세 미만의 청년들이 미리 이 앱을 설치해두면 만 24세가 지나 신청 시기가 됐을 때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앱을 설치한 사용자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개인이 직접 수혜를 받는 65종의 복지사업을 한 곳에서 확

할 수 있으며, 6종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알림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안에 시군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과 경기도의 공개 채용정보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경기도와 시군의 복지 신청 시스템과 연계해 복지사업 신청 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복지사업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알림톡' 앱은 사용자가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많은 도민들이 이 앱을 설치해 다양한 복지사업의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경기알림톡', '알림톡'을 검색하면 누구나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서 자신의 정보(마이데이터)를 내려받기만 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근수/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재난 기본소득 전액 기부 실천

7일,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기부하며 개인 기부금액 14,452,000원 달성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을 위해 전액 기부했다.

7일 다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조광한 시장은 본인과 가족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후 기부 신청서를 작성해 남양주시복지재단에 전달하며 뜻깊은 기부 행진을 이어갔다.

그동안 조 시장은 지난해 월급 30%와 정부·경기도·시 지원금 전액, 강의를 포함해 총 14,052,000원을 기부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왔다.

조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착한 기부 운동에 모두가 참여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봄과 함께 따뜻한 기운을 전달하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길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조 시장은 이날 기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러 온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건

의 사향을 듣는 등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조 시장 개인이 기부한 금액은 앞서 기부한 14,052,000원에 이번 40만 원을 더해 총 14,452,000원이 됐다.

최근수/기자



고양시, "더 빠르게, 더 촘촘하게" 11개 철도 노선 신설·연장 추진

특례시, 창릉지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 자족도시 대전환에 걸맞은 철도교통 구축

자족도시 대전환을 앞둔 고양시의 철도교통망이 오랜 정체를 딛고 진일보한다.

확장된 철도교통망은 내년 1월 출범하는 고양특례시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고양 성사혁신지구·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을 탄탄히 뒷받침하게 된다.

고양시는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해 GTX-A·서해선 등 6개 철도 노선 신설과 지하철 3호선(일산선)·인천 2호선 등 5개 노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2개뿐이던 기존 철도가 4배 이상 늘어나고 촘촘해진 교통망으로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경기 남·북부와도 한층 가까워질 전망이다.

-사통팔달 교통망 갖추다... 6개 철도 노선 신설 추진우선 고양에서

서울 강남권 접근이 빨라지고 쉬워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①GTX-A노선은 킨텍스에서 대곡·창릉을 거쳐 서울 강남까지 20분대에 주파,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②서해선은 대곡~소사 구간 신설이 진행 중이며,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기존 노선이 일산까지 연장됐다. 서해선은 김포공항역 등을 통과, 지하철 3·5·7·9호선 뿐 아니라 공항철도·김포지하철·경인선 등 7개 노선과 환승이 가능해 서울 강 남권과 수도권 남부로 이동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GTX-A는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선 구간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해선은 올해 7월 개통 예정이

었으나, 한강 하저터널 연역지반 보강과 김포공항 환승통로 구간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시는 관내 구간에서 공사가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인천 계양·부천 대장·하남 교산·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5개 3기 신도시의 광역 교통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고양 창릉의 경우, GTX-A의 창릉역 신설과 함께 서울 은평에서 덕양구 화정을 경유해 고양시청을 연결하는 ③고양선(가칭) 신설이 핵심 사업으로 발표됐다. 현재 출퇴근 시간 혼잡이 극심한 자유로·동일로 일대의 교통 정체가 개선되고, 철도를 이용한 서울 도심지 이동이 한 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교통이 낙후된 일산동구 ④식사·풍동지구에 신교통수단 도입이 포함돼 광역철도와 연계할 수 있는 지선 기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출근시간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경의중앙선 증차도 광역교통대책 사업에 포함됐다.

서부광역철도 ⑤월종~홍대선은 기획재정부에서 민자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며, 구간 내 덕양구 덕은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파주시와 상생협약을 맺고 덕양구 삼송역에서 파주시 금촌역까지 ⑥통일로선(가칭) 추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민 생활권 넓어진다... 교통망 확충 위해 5개 노선 연장 추진 박차 철도 노선 신설 뿐 아니라, 기존 노선을 연장해 고양시 교통망을 확장하는 사업도 한창이다.



우선 시는 지난해 6월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서부광역철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존 소사에서 대곡까지였던 ⑦서해선 노선을 경의선 선로를 이용, 곡산·백마·풍산을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는 것을 확정했다.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시는 현재 대곡~소사 구간과 일산 연장 구간을 동시 개통하기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는 경기도·양주시·의정부시와 손잡고 고양과 의정부를 잇는 ⑧교외선 운행 재개를 2024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이용객이 줄어 2004년

운행을 중단했던 교외선의 운행 재개 이후 노선 활성화 및 사업성 향상을 위해 인구밀집도가 높은 관산동·고양동을 경유하는 노선을 검토,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기도 및 국토부에 적극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⑨지하철3호선 일산선의 파주 연장도 추진 중이다. 인천 불로 지구에서 탄현·중산 구간의 ⑩인천지하철 2호선의 일산 연장도 ⑪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구간) 사업은 중앙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비추살마를

길

상과 섬 이곳에서 하니로 올랐으니

빛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이 레시피, 전통음식이 어우러진

심

자연과 베풀어준 선비의 기쁨이 깃들었다...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게계, 본신계곡, 침백공원, 촉백수원,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살마을, 감천마을, 지강마을, 금촌마을, 검산선,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부산국제교류재단유리가가린 우주비행60주년 기념 러시아 영화주간 개최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러시아 출신 우주인 유리가가린 관련 영화다큐 상영

부산국제교류재단(사무총장 정종필)은 주부산러시아총영사관(총영사 겐나디 라브코프)과 함께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인류 최초 우주인 유리가가린의 우주비행 60주년을 기념하고자 오는 4월 12일부터 7일간 '유리가가린 우주비행 60주년 기념 러시아 영화·다큐주간'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리가가린은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로 우주를 다녀온 러시아 출신 우주인으로, 동 인물을 콘텐츠로 한 국내 미개봉 러시아 영화 2편과 다큐멘터리 3편의 작품을 최초로 상영한다. 이번 영화 관람을 통해 유리가가린의 전기부터 러시아 우주산업에 대한 이해와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 개최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유리가가린의 장녀인 엘레나가가리나(모스크바 크레믈린 박물관장)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러시아 출신 방송인 안젤리나 다닐로바와 일리아 벨코프, 인기 유튜버 소련여자, 채리쉬 그리고 前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국회의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이상를 원장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외에도 다채로운 참가자 이벤트를 통해 러시아 우주식량 및 유리가가린 기념 티셔츠도 증정할 계획이며, 동 영화주간에 부대행사로 기획된 '러시아 우주인과 만남' 온라인 간담회가 4월 중 부산지역 청소년들과 진행될 예정이다.

남궁영기자



거창군, 길가에 누수가보이면 언제든 신고하세요

유수율 제고를 위한 365일 누수발생 총력대응

거창군은 2020년 기준 27.8%였던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위해 누수탐사용역, 누수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유수율 제고사업 시행으로 누수발생에 총력대응 하고 있다.

군은 1분기 사전누수탐사용역을 통해 거창읍 및 3개 면(웅양, 주상, 위천) 노면누수 10건을 복구완료 했고, 군민들의 누수신고 총 7건에 대해 각 3만 원 상당의 거창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유수율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누수의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공휴일은 물론이고 밤낮 없이 대응하고 있으며, 상수도 현장민원처리 담당을 지정하고 긴급 상수도 대행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365일 연중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생활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장봉기 수도사업소장은 “누수발생에 대한 노후 상수관 정비 및 유수율 제고 사업을 통한 상수도 경영효율 개선을 기대하며,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김해 대표 관문 동김해IC 대형 쌍어 조형물 설치

수로왕과 허왕후 상징 김해 정체성 널리 알려

김해의 대표 관문 동김해IC 진출입부에 쌍어 문양을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이 설치됐다.

쌍어는 가야왕도 김해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문양으로 두 마리 물고기 중 한 마리는 가락국 시조 수로왕을, 또 다른 한 마리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시집 온 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을 상징한다.

이 조형물은 사실적으로 표현한 기존의 쌍어 조형물과는 차별화해 추상적이며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세련된 도시 이미지와 조화를 강조했다. 철제, 강관, 알루미늄 재질로 높이는 각각 18m, 15m에 달한다.

고속도로 진출입부에 배치해 김해시로 진입 시 황금색의 수로왕이 맞이하고 고속도로 진출 시 옥색의 허황후가 배웅하는 의미를 담았다.

야간에는 하늘, 남색, 초록, 자주, 보라, 노랑의 6가지 빛을 발산, 김



해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

향후 시는 양쪽 조형물 사이를 걸어서 오갈 수 있는 보도교를 설치하고 부근에 대형주차장과 휴게 편의 시설을 갖춘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과 동남권 경제의 거점지역인 동김해IC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가야왕도 김해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김해의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허성무 창원시장,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간다

마산회원구 구암동 방문해 다양한 주민생활 현장 찾아 소통 행보



허성무 창원시장은 7일 오후 3시10분 마산회원구 구암동을 찾자 주민들의 일상 현장에서 격의 없이 소통하는 ‘현장 마실 동네를 걷다’ 행사를 가졌다.

‘현장마실 동네를 걷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변경이 동네 중심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가까이 있었지만 미처 몰랐던 동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시책이다.

허 시장은 이날 첫 번째 방문지로 구암동의 숨은 명소인 구암서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구

암1동 마을해설사들과 만난 허 시장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의 자랑거리에서부터 발전 방향에 이르기까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구암1동 나눔곳간이다. 지역 자생단체와 주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물품공유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허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배려하는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구암2동행정복지센터로 발길을 옮긴 허 시장은 복지패

밀리 회원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에게 밀반찬을 직접 배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일상의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움직이다 보니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가 피부에 와닿는다”며 “지역의 문제와 해법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현장을 찾아 직접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창원시, 제너럴 일렉트릭(GE)과 방위·항공기업 수출판로 개척 지원

방위·항공 산업협력 B2B 수출상담회, 창원에서 개최

창원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방위·항공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위·항공 산업협력 B2B 수출상담회’가 창원에서 개최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수출상담회는 제너럴 일렉트릭(GE)사의 계열사인 GE MARINE의 글로벌 가공 소싱 업체 발굴 및 협력업체 등록에 목적이 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전국 15개 방위항공업체가 참가하였으며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그랜드 머큐어 엠베스터 창원호텔에서 진행된 다.

제너럴 일렉트릭(GE)사는 항공, 전력,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3D 프린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특히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으로 최근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에 탑재될 GE F414 엔진을 한국에 인도하였으며,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함정의 추진기관인 가스터빈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수요조사를 통해 GE MARINE과 협력이 가능한 국내 기업을 발굴했으며, 그 결과 ㈜삼영엔지니어링, 성산항공(주), 이엘코리아(주) 3개의 기업이 수출상담회에 참여하여 일대일 상담을 활발히 진행했다.



특히 수출상담회를 위해 창원지역을 방문한 GE AVIATION KOREA 대표 및 인도태평양 군수 영업 총괄 부사장을 겸임 중인 김영제 대표이사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면담 시간을 갖고 창원지역 내 방위·항공기업들의 GE 글로벌 부품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협력 및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시와 GE는 지난해 11월 개최된 ‘2020 총무공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사전수출상담회를 통해 창원 관내 중소기업 5개사의 글로벌 수출 개척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96개의 항공 및 방산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

남궁영기자

울산시북구 복구종합사회복지관 ‘행복버블 세탁소’ 재오픈 사업설명회

세탁기, 건조기 재설치 등 정비 끝내고 서비스 제공

울산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이불세탁을 지원하는 ‘행복버블 세탁소’를 다시 운영한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은 7일 ‘행복버블 세탁소’ 재오픈식과 함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행복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와 시연회를 열었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 행복세탁소는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2019년까지 운영했으나, 세탁기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한동안 운영이 중단됐다. 지난해 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 2천520만원을 지원받아 올 초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를 다시 설치해 재정비하고, 명칭도 ‘행복버블 세탁소’로 변경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저소득 성인장애인인 이불빨래를 수거해 오면 세탁을 거쳐 다시 세대로 배달해 주게 된다. 협의체 위원들은 이불빨래 수거와 배달을 통해 취약계층 세대의 안부를 살피는 역할도 맡게 된다.

북구 관계자는 “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망과 복지사가각각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2020 대구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발표

신체활동 줄고 개인위생, 뇌졸중·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 크게 개선

대구시는 2020년 8월~10월, 만 19세 이상 시민 7,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신체활동은 감소했으나, 개인위생, 흡연, 음주 등 건강지표 개선, 뇌졸중·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과 혈압·혈당 수치 인지율이 크게 개선돼 코로나 19 상황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조사 내용은 주요 건강행태 등 142문항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조사를 완료했으며, 2020년 대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출 후 손씻기 실천율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실천율이 98.6%로, 전년도 대비 10.8%p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 전국 중앙값과 비교해도 1.6%p가 높아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66.0%로 전년도 대비 6.1%p가 상승해 전국 중앙값보다 8.6%p가 높고,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

율도 59.6%를 나타내 전년도 대비 3.7%p가 상승해 전국 중앙값 대비 9%p가 높으며, 대구시의 뇌졸중 및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혈압수치 인지율은 61.1%로 전년도보다 11%p 상승했으며, 혈당수치 인지율 역시 29.0%를 나타내 전년도 대비 12.5%p가 상승해 전국 중앙값 대비 0.5%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율은 19.4%로 전년도 대비 0.4%p 감소했고, 남성 현재 흡연율 역시 전년도 대비 1%p 감소했다.

월간 음주율은 51.1%로 전년도보다 7.5%p 감소해 전국 중앙값보다 4.2%p가 낮으며, 고위험음주율은 9.1%를 나타내 전년도 대비 3.0%p가 낮아졌고 전국 중앙값 대비 2.2%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8.8%로 전년도보다 5.8%p 감소했으며, 걷기 실천율은 39.1%를 나타

내 전년도 대비 5.5%p가 감소했으나 전국 중앙값보다는 2.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자기)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67.9%를 나타내 전년도 대비 3.5%p 증가했으며, 전국 중앙값보다 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3.1%로 전년도 대비 2%p 감소했으며 전국 중앙값 대비 3.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5.4%로 전년도와 차이가 없지만 전국 중앙값 대비 0.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불편 호소율(65세 이상)은 29.5%를 나타내 전년도 대비 2.5%p 감소했으며 전국 중앙값 대비 1.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건강행태, 건강수준, 삶의 질, 안전의식, 이환 및 의료이용 등으로 지역사회와 정책부서의 요구를 수렴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했으며, 책임대학인 경북대

학교의 기술지원을 받아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해 8개 구·군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총 7,317명을 조사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중단을 재개를 반복했으며, 조사요원의 사전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조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지역사회 감염 없이 안전하게 조사를 마쳤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 분야의 현황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근거자료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인위생, 흡연율, 음주율 등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됐으나, 신체활동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정책을 마련해 건강한 도시, 대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남궁영기자

울산해경-울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생존자 심리자원을 위한 업무협력체계 구축

자살 생존자 심리자원을 통한 정신건강위기관리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7일 울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 생존자 심리자원을 위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광역센터 통계에 따르면 19년 기준 울산시 자살자수는 3백 여명으로 가족,친구를 포함한 연간 약 1,600명 이상의 자살유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애도과정과 심리, 사회적 고통이 일반인에 비해 자살위험은 8.3배, 우울증은 18배 이상 높게 나타나 자살 고위험 군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살유족을 '자살이라는 재난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일명 '자살생존자'라고 일컫는다.

특히 자살생존자의 97.5%가 일상생활의 변화로 힘들어하는 만큼 신속한 위기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울산해경은 자살생존자가 고인에 대해 건강하게 애도할 수 있도록 돕고,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인 울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생존자의 심리적 안정

을 도모하고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살 시도가 발생되면 해양경찰 출동 요청에 따라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인계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해경서장은 직무교육을 통해 자살응급처치 및 자살 중재기술 훈련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경찰관의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자살률을 낮추고, 유가족 또한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다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김천시 '매진 신화' 김천상무, 10일 부천전 티켓 오픈!

올 개막전을 매진으로 장식한 김천상무가 10일 부천전 흥경기 티켓을 5일 오픈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5일 오전 11시, 온라인 예매 사이트 티켓링크를 통해 10일 오후 6시 30분 김천중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21' 6R 부천FC와 흥경기 온라인 예매를 시작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김천은 총 3,066석을 개방했다.

전 좌석은 1인 4매까지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며 경기 당일 현장 구매는 불가능하다. 예매 가능 좌석은 테이블석(T구역)을 포함한 가변석A(W구역), 스탠딩석을 포함한 가변석B(N구역), A,B,G,H,I구역이다.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가변석은 총 724석 예매 가능하다.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앞 뒤 한 자리, 좌우 세 자리 씩 띄어 앉기를 시행한다.

원정 팬 입장은 프로축구연맹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가능하다.

테이블석(T구역)은 성인 15,000원, 청소년 10,000원, 어린이 8,000원이며 테이블석을 제외한 가변석



(W/N구역)은 성인 10,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이다. 이외 A,B,G,H,I구역은 성인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이다.

군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미취학 아동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들 또한 반드시 온라인 예매를 거쳐야 하며 경기 당일 현장 대표소에서 증빙

확인 후 입장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김천시민(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김천시인 자)은 3,000원 할인을 제공하며 문화누리카드 40%할인, 축덕카드(신용) 5천원, 축덕카드(체크) 3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천상무 흥경기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김세기기자

2020 대구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발표

신체활동 줄고 개인위생, 뇌졸중·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 크게 개선

대구시는 2020년 8월~10월, 만 19세 이상 시민 7,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신체활동은 감소했으나, 개인위생, 흡연, 음주 등 건강지표 개선, 뇌졸중·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과 혈압·혈당 수치 인지율이 크게 개선돼 코로나 19 상황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조사 내용은 주요 건강행태 등 142문항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조사를 완료했으며, 2020년 대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출 후 손씻기 실천율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실천율이 98.6%로, 전년도 대비 10.8%p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 전국 중앙값과 비교해도 1.6%p가 높아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66.0%로 전년도 대비 6.1%p가 상승해 전국 중앙값보다 8.6%p가 높고,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도 59.6%를 나타내 전

년도 대비 3.7%p가 상승해 전국 중앙값 대비 9%p가 높으며, 대구시의 뇌졸중 및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혈압수치 인지율은 61.1%로 전년도보다 11%p 상승했으며, 혈당수치 인지율 역시 29.0%를 나타내 전년도 대비 12.5%p가 상승해 전국 중앙값 대비 0.5%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율은 19.4%로 전년도 대비 0.4%p 감소했고, 남성 현재 흡연율 역시 전년도 대비 1%p 감소했다.

월간 음주율은 51.1%로 전년도보다 7.5%p 감소해 전국 중앙값보다 4.2%p가 낮으며, 고위험음주율은 9.1%를 나타내 전년도 대비 3.0%p가 낮아졌고 전국 중앙값 대비 2.2%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8.8%로 전년도보다 5.8%p 감소했으며, 걷기 실천율은 39.1%를 나타내 전년도 대비 5.5%p가 감소했으나 전국 중앙값보다는 2.4%p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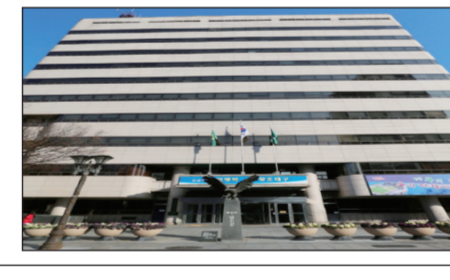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자기)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67.9%를 나타내 전년도 대비 3.5%p 증가했으며, 전국 중앙값보다 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3.1%로 전년도 대비 2%p 감소했으며 전국 중앙값 대비 3.1%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5.4%로 전년도와 차이가 없지만 전국 중앙값 대비 0.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불편 호소율(65세 이상)은 29.5%를 나타내 전년도 대비 2.5%p 감소했으며 전국 중앙값 대비 1.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영기자



김영록 지사, “장흥, 의약산업·지역교류 중심지로”



전라남도가 지리적으로 전남 중심부에 위치한 데다 생물자원이 풍부한 장흥을 생물·의약산업 벨트의 한 축으로서, 의약산업 및 의료관광과 지역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천연물 원재료 GAP/GMP 표준화 기반 구축,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추출 및 표준화 기반 구축,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주변 시군과의 연결하는 국지도 확포장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까지 최근 4년간 국·도비 지원액만 30여 사업에 5 천780억 원에 이른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인 장흥을 의약·교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오는 8일 김 지사의 장흥 군도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전남도와 장흥군의 연계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전남도는 장흥을 하늘·바다·숲 등 맑은 블루자원과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 전남 생물·의약산업 벨트의 한 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3년간 100 억 원을

기대된다.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90억 원을 들여 전남 바이오메디컬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바이오헬스산업 해외 진출 실증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소재 기능성·효능 분석, 추출기술 향상, 품질 보증, 해외 바이오 요구사항 해결 등 해외 수출을 지원, 국산 바이오소재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전남의 중심부인 정남진 장흥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앞당길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육상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전남소방 본부를 장흥으로 이전했다. 지난해까지 2년간 143억 원을 들여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본부동 4층, 소방서동 2층, 연면적 5천㎡ 규모로 건립, 지난 1월 이전을 완료했다.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소방학교와 특수구조대, 도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재난 대응 기관이 한 곳으로 집중, 전남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됐다.

특히 도내 22개 모든 시군의 재난을 1시간 이내 대응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200여 명이 상주하고 소방 관련 민원인 등 유동인구가 연간 3만여 명으로 추산돼 장흥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흥 지역 소방 수요 변화에 따른 재난 현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98억 원을 들여 지난해 장흥소방서를 신설해 운영 중 이고, 현재 본관동을 추가로 증축하고 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2022년까지 3년간 100억 원을 들여 ‘해양공원 역사 향기 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공원 재생, 복합형 문화공간 및 한 반도 사방진미니어처 테마공원 조성 등을 조성한다. 연간 4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 및 5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김장길/기자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향교 동 마을계획단 발대식 및 워크숍

2021년 4월 6일,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향교동 마을계획단 발대식 및 워크숍 제1강이 진행되었다.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마을계획단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자원을 찾아보고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분과별로 상정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의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자치조직이다.

마을계획단에 참여하여 향교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날 각종의 많은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마을계획단

발대식이 진행되었고, 이 후에는 마을계획단에 참여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제1강이 ‘향교동의 주민은 누구인가’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각 회 차마다 마을계획단 추진을 위한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교동 발전협의회(변재병)은 “마을계획단이라는 기회로 발전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과 또 두 손잡고, 남원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향교동을,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화순군, 5월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화순군이 봄철 임산물의 본격적인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단속을 강화한다.

해마다 봄철이면 상춘객과 등산객이 늘면서 산나물 채취자 등 임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화순군은 특별 사법경찰, 읍·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동단속반은 5월 31일까지 산나물이나 산 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하는 행위,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 이등,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기동단속반은 불법 채취 등 집중 단속과 함께 봄철 산물 예방활동도 펼친다.

군은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주 등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칠것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영안/기자



영광군, 소고기와 함께하면 칼떡 ‘아스파라거스’ 본격 출하

영광군은 6일 제철 맞은 아스파라거스 수확이 한창이라고 밝혔다.

아스파라거스는 과거 서양에서는 왕족이나 귀족들만 맛볼 수 있어 ‘왕의 채소’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식재료로 여겨졌으며 국내에서는 식생활 변화로 육류와 함께 곁들여 먹거나 샐러드로 이용되고 있어 소비량이 매년 4~5%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삭거리는 식감과 더불어 피로와 숙취를 해소하는데 도와주는 아스파라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루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건강 기능성 채소로 알려져 있다.

영광군에서는 강원도산 아스파라거스가 본격 출하되는 5월보다 1~2달 조기 수확이 가능한 온화한 기후의 이점을 살리고 농업 소득이 없는 3~4월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2018년부터 시범 도입하여 지금 2농가 0.5ha에서 재배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아스파라거스는 최근 식단의 변화로 매년 소비가 증가되는 품목으로 농민에게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의 틈새작목으로 지속 육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목포시, 김영록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성료

신재생에너지·수산식품·관광산업+문화예술 3+1 전략 집중 소개

목포시가 ‘2021 김영록 도지사와 목포시민이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김영록 지사는 6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김중식 목포시장, 박창수 시의회의장,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도정(시 정)보고, 건의사항,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여자를 최소화하고 미리 신청받아 선정된 온라인 참여자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설명된 가운데 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식품산업, 관광산업 등 3대전략산업에 문화예술이 결합된 ‘3+1’ 전략을 집중 소개했다.

김중식 시장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정체 전남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 및 ‘전남형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에 문화예술을 더한 목포시의 ‘3+1 미래 전략산업 육성’은 일맥상통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서남해안 8.2GW 해상풍력 생산거점 조성과 국내 최초 친환경건설박 클러스터 구축 등 양대 축을 통해 전남형 뉴딜을 이끄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수산식품산업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목포 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 수출전략형 김 가공 산업 육성 등을 앞세워 수출시장 선도를 전국 제1의 수산식품 도시로 부상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관광산업은 평화광장·원도심·삼포도·고하도 등 권역별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 맛의 도시 브랜드화 사업, 스마트 관광안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1천만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문화예술은 ‘문화를 여는 새로운 개항, 365일 문화향유 도시’라는 모태로 예비문화도시사업, 전국 최초 문학박물관, 목포가을페스티벌 등 문화컨텐츠 강화와 함께 여울림도서관 건립 등 문화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문화생태계 구축과 문화일자리를 창출 등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비전을 내보였다.

우수시책으로는 해변맛길 30리 조성,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자전거터미널·반려동물놀이터·브랜드택시 낭 만콜 운영 등 확대하고 있는 생활편의시책 등을 소개했다.

끝으로 시는 도심 웰빙공원 숲길 조성사업비에 대한 전남도의 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연동광장에서부터 임성역까지 철도폐선부지 6.2km 구간에 조성된 웰빙공원은 지난 2014년 완공된 이후 시민의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으나 노면 상태가 좋지 않고 편의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송림공원에서 부터 석현공원까지 3.9km 구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민들도 온라인과 현장에서 ▲목포대 의과대 및 대학병원 유치 도차원 노력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도 차원 적극 지원 ▲서남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리틀야 구장 안전시설물 보강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중식 시장은 “올해 대화는 한데 모여 대화를 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웠지만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돼 신선했고, 유익했다”면서 “목포는 새로운 비상을 위한 도약 대 위에 서 있다. 전라남도도 적극 협력해 전남의 변화를 목포에서부터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구례군, 8일부터 75세 이상 군민 화이자 예방접종 시작

노인시설부터 구례실내체육관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시작

전남 구례군은 8일부터 75세 이상 군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5세 이상 군민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이뤄진다. 총 대상자는 4459명이며, 6일 기준으로 82.4%인 3,676명이 동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우선접종 대상자인 노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375명 중 91.4%인 343명이 접종을 동의했다. 4월 8일부터 이틀에 걸쳐 접종예정이며 접종대상자는 시 설차량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일반 접종동지자는 읍면사무소에서 유선으로 접종 일자와 시간, 장소 등을 예약 받을 예정이다.

가족의 동행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별도로 안내된 시간에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지정한 집결지에서 전세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버스마다 읍면사무소 직원이 동행하여 방역수칙 점검 등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군은 ▲화이자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 설치 ▲의사, 간호사 등 인력 확보 ▲센터 내 각종 부대시설 등 준비를 완료했다. 지난 16일과 31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제 예방접종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추진하고 단계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접종을 위한 화이자 백신은 지난 5일 오전 구례군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 도착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우리 군은 고령화 지역으로 이번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치면 군민의 약 20%가 면역이 형성되게 된다”며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안정적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홍/기자

‘국제생태거점’ 꿈 키우는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비전’·국내 첫 생태복원 국립공원 ‘목표’ 등 제시

충남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일원 브라운필드를 국제적 생태환경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도의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다.

일제강점기 수탈과 근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산업시설 가동 중단으로 인한 구도심 쇠퇴 등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이자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상징 공간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7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장항 오염 정화 토지 활용 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 주민과 이우성 도 문화체육부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중간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장항은 1900년도 초반 일제가 충청도 지역 미곡과 자원 반출을 목적으로 바다를 매워 조성하고, 1931년 장항선 개통 1936년 장항제련소 준공 1938년 장항항 개항 등 수탈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했다.

이 중 장항제련소는 원산 및 흥남 제련소와 함께 일제강점기 국내 3대 제련소 중 하나였으며, 210m 규모의 제련소 굴뚝은 당시 아시아 최대 높이로, 우리나라 근대 산업의 상징물로 소개되고 있다.

장항항은 1964년 국제항으로 승격되고, 이후에도 제련소 관련 물동량을 유지했으나, 1989년 장항제련소 운영 중단에 이은 1990년 금강하구둑 건설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장항항과 장항선 등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서천군 인구는 1966년 16만 1000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69%가 감소한 5만 1000여 명에 불과하다.

특히 장항제련소가 50년 동안 내뿜은 대기오염물질은 주변 토양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07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고, 토양 정밀 조사 등을 거쳐 2009년 관계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이끌어내게 된다. 종합대책을 토대로 환경부와 도,



서천군은 총 970억 원을 투입해 중금속 오염 토지 110만 4000㎡를 매입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환경부가 1941억 원을 들여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을 추진했다.

정화 사업을 마친 토양은 이후 도시개발방식의 토지 활용이 모색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됐다.

도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2019년 국제환경테마특구 구상을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전략회의 때 이에 대한 추진을 대통령에 건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천 브라운필드에 대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추진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토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시대 대응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를 비전으로 내놨다.

목표는 △대한민국 최초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도시 조성 △한국판 뉴딜정책의 지역 실현 △브라운필드 재이용을 통한 지역발전 원동력 마련 등을 제시했다.

추진 전략은 △브라운필드 및 주변 지역 생태계 복원·보전체계 마련 △생태·역사·문화 자원 활용 스마트 생태관광지구 조성 △국가생태산업 단지 연계 해양·생태 연구 선도기지 구축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주도형 지역재생 등으로 잡았다.

실천 사업으로는 △장항 인공생태습지 조성 △멸종위기종 철단 연구 및 관리센터 건립 △국립공원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생태·역사 탐방로 조성 및 운영 △주요 관광지점 연결 친환경 교통수단 마련 △장항 치유의 역사관 건립 △생태관광 온·오프라인 홍보 체계 마련 등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생태모방 연구센터 및 실증화단지 건립 △연안습지(블루카본)연구소 건립 △해양·생태산업 클러스터링 지원 △장기 체류형 마을 조성 △마을 녹색화 프로젝트 추진 △지역 해설사 육성 및 운영 등도 실천 사업으로 꺼냈다.

이날 중간보고에서는 이밖에 국제환경테마특구 기본 구상도와 주변 거점 연계도, 세부 공간 구상 등도 제시했다.

이우성 부지사는 “서천 브라운필드는 일제강점기 수탈과 국가산업 전초기지 역할 수행 후유증으로 토양 오염 등의 아픔을 가진 곳”이라며 “도는 이 지역이 아픈 역사에서 벗어나 지역 성장동력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활용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6월 2차 중간보고회와 8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고정화기자

(재)세종테크노파크, 2021년 수출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출새싹기업’ 모집

(재)세종테크노파크가 올해 수출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부와 세종시의 지원을 받아 세종시에 소재한 수출 유망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 당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수혜기업은 사전컨설팅, 해외시장조사, 해외인증, 전시회, 바이어 미팅 통번역 등 다양한 수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자격은 세종지역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수출초보, 수출주력, 수출강소 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27일까지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세종기업지원안내 모바일 웹 QR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세종테크노파크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출새싹기업은 1차 서류검토,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될 계획이다.

(재)세종테크노파크 김현태 원장은 “세종시 내 수출유망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활성화를 통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지역 대표 수출기업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8일부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22시~05시 영업제한, 학교 밀집도 1/3

대전시는 현재의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8일부터 시행한다.

2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 이후 영업을 금지된다. 또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로 제한되며, 학원은 22시부터 영업을 금지된다. 특히 종교 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대전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 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대전시는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 등 다른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를 긴급히 결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정화기자

음성군,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증진 사업 총력

2022년까지 음성읍 읍내리 제2노인복지관 조성

충북 음성군이 노인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음성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2만165명으로 전체 인구의 9만 2천407명의 20%가 넘어서며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특히, 2019년 12월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20.1%로 초고령사회로 처음 접어들어, 2020년 12월에는 인구 1천명당 214명인 21.4%로 1년 사이 1.3%나 증가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음성군이 다양한 노인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이유다.

군이 올해 확보한 노인복지증진 관련 예산은 795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681억원보다 약 16.7%를 증액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군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된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제2노인복지관을 조성해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과 복합형 문화복지 거점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음성읍 읍내리 675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는 국비 50억원, 도비 8억원, 군비 67억원 등 총 125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3천 484㎡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8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노노카페, 엄마식당, 공

동작업장뿐만 아니라 직업상담·체험실, 폭력예방 극장, 생활체육교실, 파워업(GX수업), 물리·운동치유실, 한방테라피 등으로 구성된다.

센터가 완공되면 음양읍 노인복지관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음성, 소이, 원남 거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교육, 여가 등의 기능도 수행 할 수 있는 종합 문화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올해는 전년보다 249명 증가한 3천21명(23개 사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해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소득 확보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인 노인민원복지 콜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의뢰가 힘든 어르신들에게 전화 한 통화로 상담과 민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시행 첫해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98명의 어르신에게 상담, 정보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1천243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서비스로 올해도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군은 취약노인 1천764명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말벗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디지털 돌봄장치 654대를 취약노인 가정에 보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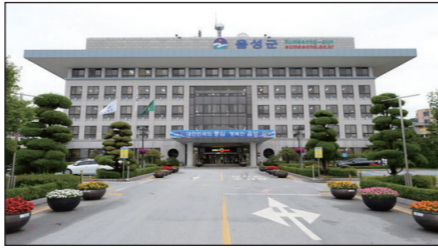
이를 통해, 건강컨텐츠 제공, 응급상황 발생 시 사진촬영, 활동량, 화재감지, 응급호출 정보 등을 자동 송신하는 비대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79개 마을 경로당에 경로당 순회주치의제를 운영해 지난해 2천170명의 어르신이 의료서비스를 받았으며, 올해는 248회 정도 운영해 3천600여명에 게 진료와 개인 맞춤형 건강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예방, 치매조기검진,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친화적 환경도 조성하고 경로당 정수기 교체, 냉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 방역소독,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 에어컨 보급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이용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춰 노인복지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강원도, 2021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피칭 프로젝트 접수 시작

참신한 기획 개발작 발굴·지원 프로그램, 12일까지 접수

2021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PIPFF) 피칭 프로젝트 공모 접수가 시작됐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참신하고 통찰력 있는 기획개발작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 간 피칭 프로젝트 지원작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시나리오화 가능한 트리트먼트로 장르 제한 없이 남북 관계나 사회적 이슈, 평화와 관련된 소재를 다룬 순수창작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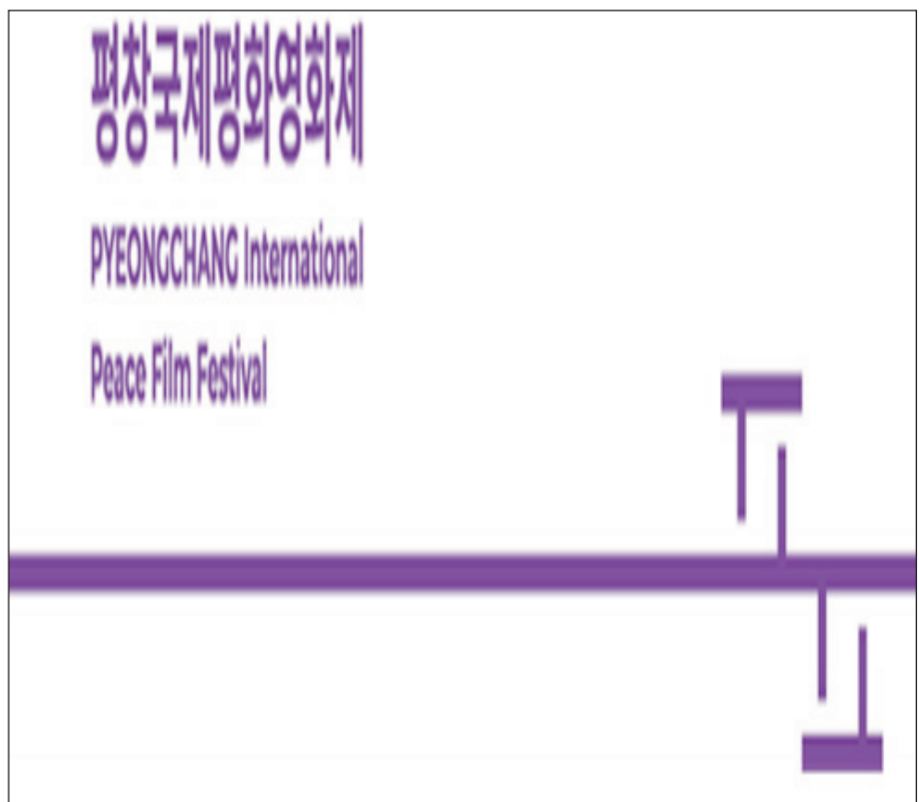
영화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인 혹은 팀당 1편으로 제한되며, 팀으로 접수할 경우 공동참여자 1인을 동반해 2인까지 가능하다.

지원 부문은 ‘시대공감’과 ‘통일공감’ 두 부문으로 나뉜다.

시대공감은 사회적 이슈 및 평화와 관련된 기획개발작을 대상으로 하며 · 전쟁, 분쟁, 난민 등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영화적 상황 · 소수자,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 인종, 젠더, 민족 등의 국제적 이슈 · 평화라는 가치 안에서 공존, 소통, 화합, 갈등, 상호 이해의 모습을 그려낸 아이덴티티를 공모한다. 통일공감은 통일을 비롯해 분단, 교류, 화해, 협력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소재를 주제로 한다.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6월 18



일에 피칭 워크숍 진행되며, 19일에 피칭 공개발표회가 치러진다.

수상작은 부문별 각 2편, 총 4편으로 지원금 3천만 원이 각 수상작들에게 차등 지급된다.

수상작은 영화제 폐막일(22일)에 열리는 시상식에서 공개되며 지원 신청서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본선 진출작은 5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콘텐츠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알펜시아 일원에서 개최되며 ‘새로운 희망(A NEW HOPE)’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통해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 도약할 예정이다.

이등원기자

세종시교육청, 올바른 쉬운 한글 사용으로 시민들에게 한발더 다가서다

세종시교육청, 올바른 국어와 공공언어 사용 추진 계획 수립·시행

세종교육이 쉽고 올바른 한글 사용에 힘쓰기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올바른 쉬운 한글 사용으로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올바른 국어와 공공언어 사용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언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공공성을 띤 언어를 말한다.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정책 용어 등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바른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매일 9일을 '한글의 날'로 지정·운영해 올바른 국어 사용하기 운동을 펼친다.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공공언어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자료, 순화 대상 행정용어 등 다양한 자

료를 안내하여 직원들의 국어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직원들은 ▲올바른 한글 사용하기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하기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 자제하기 운동을 실천한다.

'알기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 쓰기 점검표'를 활용하여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는지 등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정책 추진 시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을 활용하여 어문규범, 어법 등을 자발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신청하여 매일 교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문서 바로쓰기, 보도자료 작성법 등 연수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와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작은 노력을 시작으로 올바른 한글 사용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춘천시 퇴계제2농공단지 입주기업, 41억원 규모 투자

춘천시정부(춘한성정보시스템, 8일 41억원 투자 협약 체결

춘천시정부와 퇴계제2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춘한성정보시스템이 41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시정부는 8일 집무실에서 춘한성정보시스템과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춘한성정보시스템은 토지매입과 설비투자 등 41억3,000만원을 투자한다.

투자는 춘한성정보시스템의 매출 증대로 인한 공장 및 업무 공간 확대를 위해 진행됐다.

특히 사업분야 전망이 밝고 기업의 매출액 및 제품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관내 고용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퇴계제2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춘한성정보시스템이 더욱 성장하고,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식회사 한성정보시스템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 및 관공서, 학교 등의 System & Solution 지원을 위해 서버(Server), 스토리지(Storage) 등의 패키지 공급에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IT 전문기업이다.

최만식기자

대전 서구,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코로나19 여파에도 구민과의 약속이행 차질 없이 순항

대전 서구는 8일 청사 장대산실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구 공약이행 평가단과 구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에 애로가 있는 사업에 대한 실적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 분석 결과 5대 분야 74개 공약사업 중 47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27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공약사업으로는 ▲ 1004구정 참여단 운영 ▲ 청년창업 지원 ▲ 생활임금 1만 원 달성 ▲ 어르신 위원회 구성 운영 ▲ 육아지원 맘 센터 설치 ▲ 소상공인 지원펀드 조성 ▲ 청소년 진로 진학 상담센터 설립 등이 있다.

구는 완료된 사업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로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은 변경·보완해 대응해 나갈 계획



이다.

장종태 청장은 "공약을 잘 실천하여 주민들이 삶터에서 그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는 공약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성과 창출의 시기인 만큼, 공약 이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원주소방서, 대형사고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원주시 의료 유관기관과 간담회 가져

지난달 20일, 문막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용인원 과 병실관계자 130여명이 구조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병원과 소방서의 적절한 조치로 단 한명의 부상자 없이 전원 구조되었는데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소방활동에도 원주시 의료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신속한 대처 역시 그날의 수훈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주소방서는 원주시 의료 유관기관인 원주소방서와 원주시보건소, 원주기독병원 DMAT이 모여 당시 조치 사항들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보완사항 등을 토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다수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란 6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원주소방서의 소방력으로 신속한 의료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이때에는 원주시 보건소와 기독병원 DMAT의 의료진과 장비를 소집해 공동대응하고 있다.

이번 문막읍 요양병원 화재에서도 이들 유관기관의 신속한 상호협조와 유기적인 업무시스템으로 초기에 현장 상황이 마무리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유관기관간 핫라인 구축, 대피장소 및 공공시설 사전확인, 합동훈련 계획 등의 보완사항



으로 더욱 완벽한 대비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원주소방서장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체계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한 원주시를 위한 유관기관끼리의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충남교육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업무협약 체결

충남 학생의 탄소중립 3·6·5 실천 운동 지원 약속

충남교육청은 8일 충남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충남 학생들의 실천 중심 환경교육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상호 간 유기적 연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생태환경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남 학생의 탄소중립 3·6·5 실천 운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환경교육 실천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활동, 홍보 활동 등을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환경교육은 이론교육과 함께 실천이 더 중요한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두 기관이 이를 위해 지역 환경 정보와 교수학습자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학생들의 실천적인 환경교육이 습관이 되어, 생태친화 환경교육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올해부터 '2030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3·6·5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가지 요소(전기 사용량,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를 줄이고 6가지 요소(환경독서, 분리배출, 채식급식, 녹지공간, 착한 소비생활, 친환경 제품 사용)를 늘리고, 환경보호 5대 공동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실천하는 운동이다.

고정화기자

홍천군, 자연에서 즐기는 평생학습 체험프로그램 운영

4월 30일과 5월 7일, 수타사에서 2차에 걸쳐 진행

홍천군이 자연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오늘 체험이 내일 채움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4월 30일과 5월 7일 2차례에 걸쳐 동면 수타사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자생식물 해설듣기, 요가&명상체통, 스포츠 체통 등 1회 10명을 대상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은 일상에 지친 참가자들에

게 평생교육 체험과 계절변화에 따른 숲속의 자연을 느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23일까지 '홍천군 평생교육포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일정 및 진행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평생학습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에 지친 군민들에게 코로나19 스트레스 극복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자연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양승조 지사, 청년농부와 '소통의 폭' 넓혀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내 청년농부의 고충을 듣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8일 기술원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청년농부와 함께하는 소통·공감 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을 담은 농촌은 ○○○이고, 청년을 담은 농업은 ○○○이다'를 주제로, 도내 청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는 데 어려운 점을 비롯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토크 현장에서는 청년 농업인 정책 방향은 물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통해 활력 있는 농업·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의견 등이 논의됐다.

청년농업인들 사이에서도 직접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생산 노하우를 비롯한 회원 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양승조 지사는 "청년 농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기 좋은 농촌, 청년이 없는 돈 버는 농업을 만

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며 "청년 농업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4-H연합회는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청년들이 4-H(Head 지식교육, Heart 덕성교육, Hand 노력, 근면교육, Health 체육) 이념을 생활화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통한 사회교육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국민권익위, 4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전월세 신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문의 등 중기부(98.1%)와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명칭 변경 요구 등 LH(197.8%) 민원 증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추이와 원인 등을 분석해 '2021년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2021년 3월 민원 발생량은 총 1,374,226건으로, 전월(1,098,529건) 대비 25.1% 증가, 전년 동월(855,998건) 대비 60.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생활불편 신고 민원" 등으로 35.3% 증가했으며, 충남 지역 중에서는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10,833건)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경기 시흥시 내 배곧~월곶 경관육교의 조속한 설치 건의 등 해양수산 분야(141.1%)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11.4%), 지방자치단체(27.7%), 교육청(80.7%), 공공기관 등(96.3%)

이 모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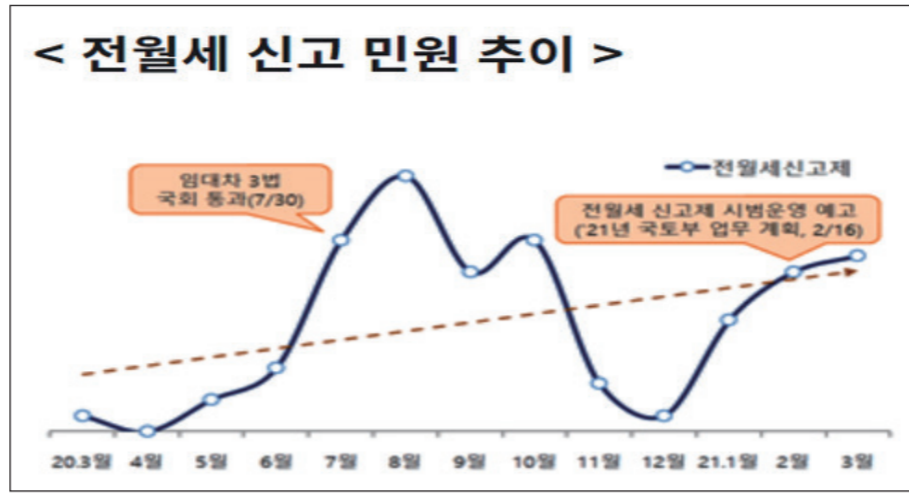
중앙행정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제4차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370건)"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98.1% 증가했다.

광역시자치단체 중에서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10,130건)"이 다수 발생한 대구광역시도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112.0%)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시흥시 등에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17,255건) 경기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33,716건) 한국토지주택공사(TH)가 많이 증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4월의 관심 키워드로 이번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1. 전면 시행)이 시범 실시 됨에 따라 각종 질의.문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전월세 신고'를 선정해 예보를 발령했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전월세 신고' 관련 민원은 소급적용 여부, 신고주체, 신고기준일 등 문의, 임대

사업자 경우 전월세 신고 해당 여부 등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도교통부 등 관련 기관이 '전월세 신고' 관련 민원발생 예방과 대응에 참고하도록 신고기준.대상 등 국민들의 각종 문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와 함께 올바른 수산물 소비문화 만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올바른 유통·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민관 수산자원관리 소통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4월 8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올바른 수산물 유통'이라는 주제로 1회차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수산자원관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관 소통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허용어획량 제도, 불법조업 방지방안, 금어기·금지제장, 소비자참여 확대방안 등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대상과 주제를 확대하여 기존의 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방송사 등과 함께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책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통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민간 참여형 정책 아이디어와 협력사항을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첫 워크숍은 유통업계인 'NS홈쇼핑'과 함께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어린 살오징어 유통이 금지된 것과 같은 별칭으로 유통되는 소비하는 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유통업계가 자발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업계가 수산자원보호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윤리적인 수산물 유통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강의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측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포획·채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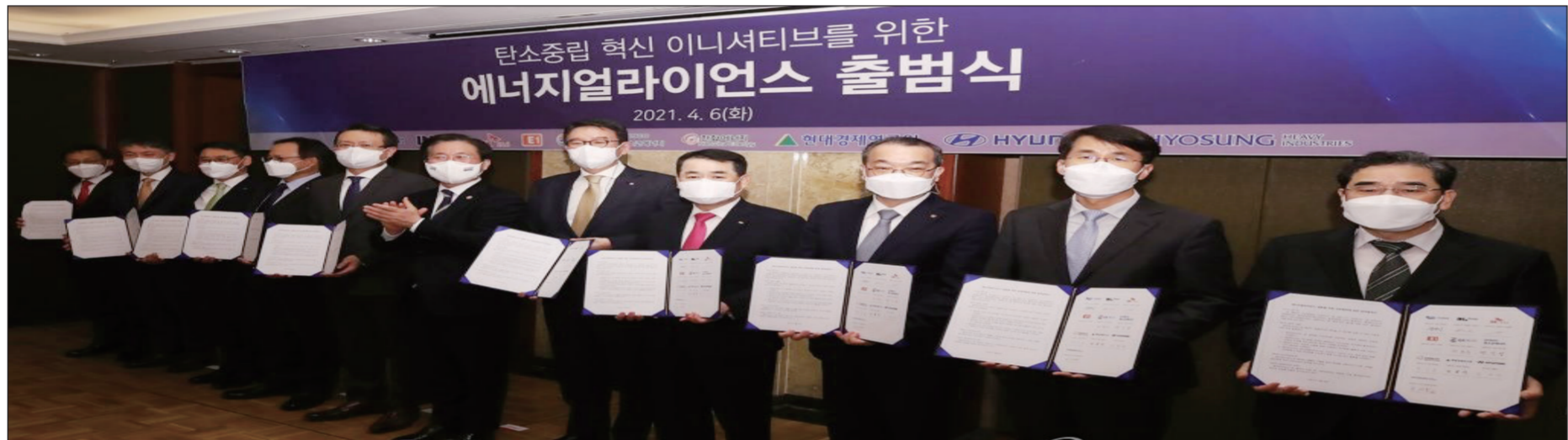
금지 제도 안내(해양수산부)와 올바른 수산물 유통·소비를 위한 소비자참여 수산자원관리 방안 소개(한 국수산자원공단)를 진행하고, 민간측에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유통업계 실천사항 제언(한국소비자연맹) ▲올바른 수산물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NS홈쇼핑 운영 개정 방침 논의(NS홈쇼핑 품질안전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4월 8일부터 금어기·금지제장 관련 질의응답집과 어린이 대상 수산자원보호 교육영상을 배포한다. 질의응답집에는 금어기·금지제장 제도에 대한 주요 질의와 답변이 담겼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어업 및 낚시 관련업·단체, 언론사와 교육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수산자원보호 교육영상은 해양수산부 대표 캐릭터인 바다요정 '해랑이'가 수산자원보호의 중요성과 실천사항을 알려주는 내용의 30분짜리 영상이다. 이 영상은 초등학교의 자율수업 시간 등에 활용되어 수산자원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영상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소통워크숍을 계기로 민간의 자발적인 수산자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앞으로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위해 에너지기업 뭉쳤다... '에너지얼라이언스' 출범



9개 기업 참여... 상호 협력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도 뒷받침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간기업 중심 연합체 활동을 본격화한다.

SK E&S, GS에너지 등 9개 에너지 기업은 6일 '에너지 얼라이언스'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전환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 얼라이언스는 세계 탈 탄소 흐름에 맞춰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사업 전략을 함께 고민한다는 취지로 올해 초부터 주요 민간 에너지 기업이 모여 논의의 끝에 탄생했다.

국내 민간 에너지 기업이 탄소중립과 관련해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에너지 업계 탄소중립 도전을 격려하기 위해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했다.

성 장관은 축사를 통해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서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에너지 분야에 걸쳐 선제적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에너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 물, 수송, 산업 등 여타 분야의 탈탄소화와 전기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혁신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위해 실효성 있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에너지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되어 정부·관련 기업과 보다 긴밀한 소통과 함께 에너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면서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선제 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백현, 컴백과 동시에 케이팝 레이더 차트 1위

엑소 백현이 컴백과 동시에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 정상에 올랐다. 백현의 신곡 'Bambi(밤비)'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14주차 집계 기간 (3월 28일 ~ 4월 3일) 동안 1,986만 뷰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케이팝 레이더에 따르면 '밤비' 뮤직비디오는 발매 42시간 만에 1천만 뷰를 돌파했다. 이전 타이틀 곡인 'Candy'가 1천만 뷰까지 46시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기존 기록을 약 4시간 단축시키며 자체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케이팝 레이더의 유튜브 조회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백현에게는 약 2천7백만 건의 조회수가 발생했다. 이 중 인도네시아가 12.6%, 한국이 10.3%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인도와 브라질, 필리핀, 멕시코, 아르헨티나가 그 뒤를 이었다. 케이팝의 황제답게 동남아시아는 물론, 브라질과 멕시코 등 남미에서의 인기 역시 굳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에서는 T1419의 'EXIT(엑시트)' 1,096만 뷰를 기록하며 3위로 진입했다. 이어 우주소년의 'UNNATURAL(언네추럴)'은 1,027

만 뷰, 김세정의 'Warning(Feat. 릴 보이)'은 816만 뷰, 강승윤의 '아이야'가 704만 뷰를 기록하며 각각 4위와 7위, 9위에 랭크됐다. 이 외에도 방탄소년단의 'Dynamite(다이내마이트)'(1,807만 뷰)를 비롯해 로제의 '온 더 그라운드'(1,022만 뷰), 아이유의 '라일락'(902만 뷰),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764만 뷰), 블랙핑크의 '뚜뚜뚜(DDU-DU DDU-DU)'(699만 뷰) 등이 TOP10에 진입했다.

한편 케이팝레이더는 케이팝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팬플랫폼 "내 손안의 덕메이트, 블립"을 선보인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티에서 음악업계를 위하여 전체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팬덤의 규모와 변화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무료로 오픈한 서비스다. 현재 국내 570개 팀의 실시간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팔로워 등의 변화량을 웹사이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케이팝 세계지도'를 공개해 오며 화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트위터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케이팝의 10년 성장 그래프와 현황을 발표했다. 최재은/기자

K-POP RADAR WEEKLY TOP 10 MUSIC VIDEO
3월 28일 ~ 4월 3일 (2021년 14주차) 주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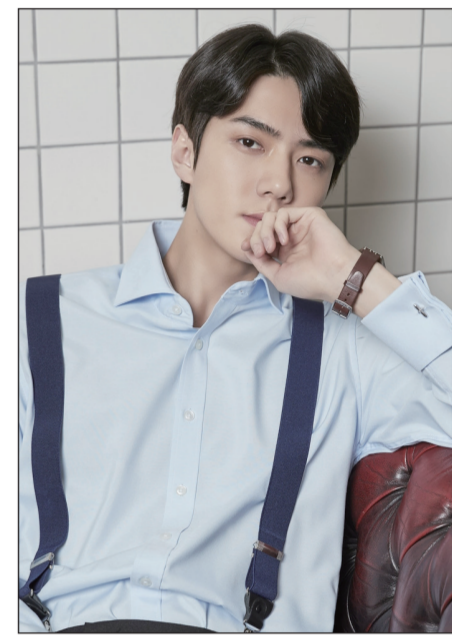
▶ 14주차 1위

ARTIST	SONG	VIEWS
1 BAEKHYUN (백현)	Bambi	19,863,776
2 BTS (방탄소년단)	Dynamite	18,072,361
3 T1419 (타일사일구)	EXIT	10,964,036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엑소(EXO) 세훈 출연확정, 배우 활약 기대

엑소(EXO) 세훈이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출연을 확정했다. 2021년 하반기 방송 예정인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극본 제인/연출 이길복/크리에이터 글Line&강은경/제작 삼화네트웍스, UAA이하 '지금, 헤')는 '이별'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 달고 짜고 맵고 시고 쓴 이별 액츄얼리티다. 송해고, 장기용, 최희서, 김주현 등 배우들이 출연을 확정하며 2021년 최고의 기대작이자 화제작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 본격 스크린 도전에 나서며 배우로서의 활약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훈은 훈훈한 비주얼과 함께 때로는 귀엽게, 때로는 능청스럽게, 때로는 거침없게 '황치형' 캐릭터를 그려낼 것으로 보인다. 2021 하반기 가장 뜨거운 주목을 모으는 드라마 '지금, 헤'를 통해 더욱 반짝반짝 빛날 배우 세훈의 활약이 기대된다. 한편 송해고, 장기용, 최희서, 김주현에 이어 엑소(EXO) 세훈까지 출연을 확정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SBS 하반기 편성이다. 전순희/기자



세훈은 '지금, 헤'에서 극의 주요 무대가 되는 패션회사 더원의 신입 사원 황치형(세훈 분) 역을 맡았다. 그러나 황치형은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다. 더원 황 대표(주 진모 분)의 늦둥이 아들이자, 디자인팀 총괄이사 황치숙(최희서 분)의 동생인 것. 황치형은 센이 빠르고 분위기 파악에 능통하며 하고 싶은 말 있음 하는, 한마디로 영리한 캐릭터이다. 2012년 엑소(EXO) 멤버로 데뷔한 세훈은 한류 최정상 아이돌로서 글로벌한 사랑을 받으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후 2018년 웹무비 '독고 리와인드'의 주연을 맡아 강력한 카리스마와 화려한 액션 연기를 소화해 남다른 존재감과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어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의 해적단 명공 '한궁' 역으

액션스타 '리암 니슨'의 격이 다른 신상 액션! '마크맨'

액션 레전드 리암 니슨의 새로운 매력으로 복미 박스오피스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마크맨'이 4월 28일 국내 개봉을 확정하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마크맨'은 베테랑 사격수였던 은퇴한 군인 '짐'(리암 니슨)이 마약 카르텔에게 쫓기는 소년을 지키기 위해 다시 총을 들고 길을 나서서 추격 로드 액션. '마크맨'은 복미 박스오피스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사상 초유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흥행 저력을 과시한 바 있다. 또한 더 이상의 수익이 필요 없는 액션 레전드 리암 니슨과 '클린트' 시리즈 '사단의 만남'이 화제이다. 특히 메가폰을 잡은 로버트 로렌즈 감독은 아카데미 4관왕 '밀리언 달러 베이비'와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오른 '아메리칸 스나이퍼', '미스터 리버' 등을 제작하며 할리우드의 명작제조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이처럼 최고의 제작진과 손잡은

리암 니슨의 새로운 액션에 국내 관객들의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예비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카리스마 넘치는 명사수로 변신한 리암 니슨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장총을 쥔 채 흔들림 없는 자세로 매서운 눈빛을 보여 단전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독보적인 존재감과 액션 레전드다운 품격을 드러내는 리암 니슨의 모습이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지킨다'라는 카피와 어우러져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전개가 펼쳐질 것을 예측하게 한다. 그간 분노에 찬 복수의 화신과도 같은 모습을 선보였던 리암 니슨이 소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백전노장 명사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낼지 호기심이 고조 된다. 격이 다른 신상 액션을 선보일 리암 니슨의 카리스마를 만날 수 있는 메인 포스터를 공개한 '마크맨'은 오는 4월 28일 개봉해 관객들과 만난다. 전순희/기자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지킨다
리암 니슨의 추격 로드 액션
마크맨
복미 박스오피스 2주 연속 1위
4월 28일 [개봉]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박보영-서인국, 1차 티저 영상 공개! ‘이 세상 초월 케미’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의 1차 티저 예고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멸망이 소망하는 인간 박보영과 그의 부름에 현관으로 찾아온 멸망 서인국의 만남이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를 부풀게 만들고 있다. 오는 5월 10일(월) 밤 9시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연출 권영일/극본 임매아리/기획&제작 스튜디오엔뉴, 스튜디오오라곤)는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존재 '멸망'과 사라지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계약을 한 인간 '동경'의 이글이슬한 목숨담보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로 탁월한 필력을 인정받고, 차기작이 가장 기대되는 작가 0순위로 손꼽힌 임매아리 작가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로 파스한 웃음을 선사한 권영일 감독의 의기투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극중 박보영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사랑을 걸기로 한 인간 '탁동경' 역을, 서인국은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존재 '멸망' 역을 맡아 초월적인 케미스트리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 6일(화),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의 1차 티저 예고 영상(<https://tv.naver.com/v/19427892>)이 공개돼 관심이 집중된다. 공개된 티저 영상은 "세상 다 망해라! 멸망 시켜줘!"라는 박보영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해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윽고 울려 퍼지는 초인종 소리에 박보영이 현관문 도어 렌즈로 바깥을 내다보자 문 밖으로는 예상치 못한 풍경들과 핵폭탄 폭발 장면까지 펼쳐져 무슨 상황인지 궁금증을 모은다. 그리고 이내 박보영이 문을 열자 현관 뒤에 숨어있던 서인국이 "안녕?"이라며 인사를 건네 눈길을 끈다. 이어 서인국은 정체를 묻는 박보영을 향해 "멸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훈훈한 미소를 지어 여심을 떨리게 한다. 더욱이 서인국의 눈빛과 표정을 웬지 모를 장난기가 서려 있어 이들의 이야기에 궁금증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단 17초만으로도 이 세상을 초월한 케미스트리를 뽐내는 박보영과 서인국의 만남이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치솟게 한다. 이에 어느 날 '멸망' 서인국이 이 멸망을 원하는 '인간' 박보영의 부름에 응하며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에 관심이 고조된다.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1차 티저 예고 영상이 공개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박보영, 서인국 케미에 심장 부여잡고 갑니다. 5월 빨리 와~ 달려와", "박보영, 서인국 비주얼함 최고다. 목소리톤도 너무 좋네", "풀리는 것마다 완전 내 취향. 벌써 재밌다", "광대 하늘 끝까지 치솟는 중. 툄 다 너 귀엽다", "티저 영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네. 5월 10일만 기다립니다"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tvN 새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는 '나빌레라' 후속으로 오는 5월 10일(월) 밤 9시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오! 주인님’ 이민기X나나, 갑자기 경찰서行? ‘궁금증 증폭’

'오! 주인님' 이민기와 나나가 경찰서로 향한다. MBC 수목미니시리즈 '오! 주인님'(극본 조진국/연출 오다영/제작 넘버스리픽쳐스)이 한비수(이민기 분)와 오주인(나나 분)의 동거 로맨스 신드롬을 썼다.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하던 두 남녀가 한 집에 살며 서서히 가까워지는 모습이 설렘을 선사하며 안방극장 연애세포를 깨웠다. 특히 4회 엔딩은 열혈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오주인이 오렌드 스토커에게 납치, 감금당한 것. 누구보다 오주인의 부재를 가장 먼저 알아챈 한비수는 곧장 그녀를 찾아 나섰고, 그녀를 구해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4월 7일 '오! 주인님' 제작진이 위험한 사건을 겪은 후 애써 불안함을 감추려 는 오주인과, 그런 오주인을 곁에서 묵묵히 지키는 한비수의 모습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전 속 한비수, 오주인은 경찰서로 보이는 곳에 함께 서 있다. 편안한 옷차림을 통해, 두 사람이 급하게 경찰서에 불러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주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서행에 당황한 듯 초조해하는 모습. 한비수는 그런 오주인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지켜주고 있다. 한비수의 존재가 오주인에게 안정감을 주

는 것으로 보인다. 극 중 한비수는 최고의 스릴러 드라마 작가, 오주인은 최고의 로코퀸 배우이다. 그만큼 두 사람에게에는 늘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뒤따른다. 그런 한비수와 오주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무뎠고 경찰서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오! 주인님' 5회, 6회 방송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 '오! 주인님' 제작진은 "이번 주 방송되는 '오! 주인님' 5회, 6회에서는 한비수가 힘겨운 오주인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두 사람 사이의 로맨스도 피어날 것이다. 이민기, 나나 두 배우의 한층 깊어진 연기력과 감정 표현을 볼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MBC 수목미니시리즈 '오! 주인님' 5회, 6회는 4월 8일 목요일 밤 9시 20분부터 2시간 연속 방송된다. '오! 주인님'은 IQIYI International에서 방송과 동시에 전세계 서비시하며, 각 회 별로 방송 직후 볼 수 있다. 해외 유저는 IQ.com을 접속하거나 애플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IQIYI International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최재은/기자



☆☆☆☆☆
**광명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
심포지엄 추천!

문화매일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보약같은 심포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
 주말에는 도시를 벗어나 푸른 자연과
 향수 어린 농사 체험 및 문화체험은 어떠신가요?
 푸르른 강과 수려한 산들이 상쾌함을 더하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보약같은
 심포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만나보세요.

